



圖2 斷面圖

龍岡 燕鳥里出土의 櫛文土器片과 ① 비슷하다는 것만을 들어 둔다.

(B) 打製石器

五點의 石器는 모두 斑岩製品이나, 風化나 侵蝕의 程度差에 따라 灰色과 棕色을 띄우는 것 두가지로 區別된다. 仔細한 說明은 여기서 避하겠으나 이 石器들은 礫石에 橫位打撃을 加해 만들어진 大形剝片을 利用한 石斧形 刀器들이며 西海岸에 隨伴하는 礫石器의 系統이라고 할 수 있다.

② 其他 遺物

(C) 其他 遺物

三國時代로 推定되는 陶器片 二點은 그것이 이 貝塚年代의 下限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單純한 後世의 流入物인지를 豫備調査만으로도 가려낼 수 없다.

以上 上記 遺物들은

이 貝塚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不充分한 것이지만 土器의 胎土와 石器의 性格으로 보아 基本的으로

櫛文土器系統의 文化를 表示하는 貝塚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後日의 發掘調査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註

① 有光教「朝鮮櫛目文樣土器의 研究」(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叢書 第3册, 京都, 一九六二) 圖版Ⅸ의 2 參照

② 笠原烏丸「櫛目文土器을 發見せる 北鮮清湖里遺蹟に就いて」(人類學雜誌 五一卷六號 一九三七年 五月) P. 二五七 및 金元龍「岩寺里 遺蹟의 土器·石器」(歷史學報 第一七·一八合輯 一九六二年 六月) P. 三三三

資料

水原城廓城門의 金石文

申 榮 勳

水原城廓의 各城門 武砂石에 造營監督한 從事員들의 姓名이 銘記되어 있다.

南門(八達門)에는『監董前牧使金樂淳』前府使李邦運』牌將嘉善李道文』

韓尙禮』林俊昌』前五衛將申曠』石手嘉善金尙得』等八十五名』

東門에는『監董前營將金箕昇』監董前府使金懋』牌將嘉善李弼載』折衝

洪履譽』石手金明漢』等六十九名』

西門에는『監董前府使金處漢』牌將僉使金泰瑞』閑良尹鎮默』石手朴尙

吉』等六十八名』

內容은 監督以下 都石手에 이르는 責任者의 職銜과 姓名을 記錄하여 工事의 責任과 그 功績을 남기려 한 것이다.

城廓의 城門 城壁에 施工者의 責任을 묻기 위하여 혹은 記錄하기 위하여 刻名한 例는 서울城廓을 비롯하여 많이 있고 羅代에서도 南山新城 碑 등에 그 遺例를 남기고 있다.

南門의 石手 金尙得은 六百四十五日間 城廓築造工事に 參與하여 八達

門과 그 北城·南城·南西墩臺와 南甕城의 東과 西城 東將臺·東暗門·西暗門·西舖樓의 浮石에 技能을 발휘하였고, 西門의 石手 朴尙吉은 一百五十二日間 長安門의 北城과 南城 北甕城 華西門과 北暗門 西城의 西暗門 西一·二雉·南砲樓·南雉 西南暗門通道 등 城서쪽부분의 工事に 종사하였고, 東門의 石手 金明漢은 六百九十四日間 勤勞하였다. 이들 三人은 京工으로 選拔된 一百六十名 중에서도 上級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룬 石材의 數는 莫大하여 南門만 보아도 大扇單石八塊 中扇單石四塊 大缸甕石二十六塊 隱柱石二百七十二塊 大圓柱石十八塊 大·中·小塊石千五百六十七塊 大·中·小塊石八百七十七塊 大·中·小武砂石九百七十塊 長·中·小臺石이 百八十二塊 漏槽石八塊 大隅石二塊 大·中·小隊長臺石三十二塊 大·中·小步石二百七十九塊 庫莫石四十七塊 大樞石二塊 大遠山石一塊 將軍石二塊 女牆左右夾門信防石四塊 등이었다.

監督으로 致仕한 南門의 金樂淳은 百七十五日間 八達門·南西墩臺·南城東城·華陽樓角道·東城女牆을 監董한 吉州牧所屬人이고, 東門의 金箕昇은 百四十日間이 蒼龍門에만 專念하였고, 같이 일한 金燾은 講武堂後行閣龜川坊補土 東城南西城 南水門 西城의 西舖樓를 二百八十二日 동안 監督하였다. 西門의 金處漢은 三和府使를 歷任 金海府使를 지낸 이인바 安眠島伐木囑浦 治木所에서 治木監督도 하였고 北城東城 華西門 西城의 西砲樓를 二百八十日 동안 監董하였다.

刻記된 內容은 華城城役儀軌와 一致하고 있으므로 敍建當時의 銘文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字體는 楷書이다.

泰和貳年銘 高麗 靑銅半子

文 明 大

이 半子は 江原道 原城郡 興業面 出土라 傳하는 通式的 高麗金鼓로써 尙마간 形式化된 手法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코 투박스럽지 않은 심세한 멋도 간직하고 있는 作品이다.

평평한 表面에는 三重同心圈을 들렀는데 二條의 內圈안에는 三十四個

나 되는 많은 小顆를 配置시켰고 一條의 中圈에는 蓮花文이라 생각되는 瓔珞形文(Y) 二十六個를 陽刻하였으며 二條의 外圈에는 特徵的 飛雲文 四片을 表現하고 있다. 裏面에는 圓味를 띤 素文의 口緣部에 一條의 口帶가 마련되었고 內徑 二四·八cm 側面에는 兩耳가 上部에서 치우쳐 달려 있으며 唯一例라 할 수 있는 唐草文이 둘러있을 뿐만 아니라 十二字나 되는 楷書體의 銘文이 二行으로 자못 稚氣넘치는 筆體로 陰刻되어 있어 特히 注目된다.

『聲壽天久萬民安泰之願以棟梁比丘前長不長』(二行)

『泰和貳年壬戌三月日記寺主重大師文損大匠初問鑄成半子一墜入重捌斤貳兩印』(二行)

이 半子の 造成年代는 泰和貳年 即 高麗神宗五年(一一〇二年)인데 梨大博物館藏 蒲溪寺盤子①와 同年이며 또한 불과 一個月 앞서 鑄成되었는데도 보다 심약스레 만들어진 것은 蒲溪寺盤子와 같이 京良工이 아닌 一地方工人의 솜씨 때문이라 생각된다. 禁口(鼓)로서 「半子」라稱한 것은 日本에 있는 正豐五年(一一六〇年) 銘半子②와 東大博物館藏 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③(一一二六年) 등과 新例로서의 出世된 貴重한 遺品으로 禁口名稱에 대해서 一聯의 系統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하튼 이 半子は 尙마간 形式化된 高麗一般式禁口이지만 심약한 手法으로 他品들과는 特異하게 많은 顆子·蓮花文이 아닌 蓮花變形의 瓔珞文·特徵的 飛雲文 그리고 側面에 唐草文 등을 配置하고 있는 것은 半子名稱과 아울러 흥미있는 問題라 하겠다.

註

- ① 黃壽永 : 『新羅高麗在銘禁口考』(海圓古稀記念史學論叢) P. 三七二
- ② 黃壽永 : 『高麗正豐銘金鼓』(考古美術五一八—一九六四·八)
- ③ 黃壽永 : 『新羅高麗在銘禁口考』 P. 三七九
- ④ 黃壽永 : 『貞祐四年銘高麗靑銅半子』(考古美術五一—一九六四·十二)